

# 우리고장 상품이 최고야!

### 전북연구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향과 과제 제안

정부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최소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브리프 '지역경제 마중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와 도민인식,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도에서 도내 최초로 발행한 김제사랑상품권 외 2019년

하반기까지 13개 지역에서 발행할 계획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4303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조사 결과, 도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자금 유통방지, 내고장 상품 소비촉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활성화 요건으로 홍보와 가맹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은 박사(연구책임)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 측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광

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상호 협력-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 편의성 증대 ▲인지도 제고 ▲활용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의 4가지 측면에서 9가지 지원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소득 효과, 소비재효과, 지역 내 거래 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지역경제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는 사용자(가맹점, 소비자) 편의성 제고, 이용 필요성 인식 제고, 공급확대 및 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양돈업 종사자에게 당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양돈업 종사자와 만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지역인재 양성 오픈캠퍼스 시동

### 도 - 공단 - 6개 대학, 협약 체결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오픈캠퍼스 산학협력과정 운영을 위해 전북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은 오픈캠퍼스에 참여해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한 취업 기회를 갖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와 공단은 오픈캠퍼스 과정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 커리큘럼, 학생 선발기준을 확정했으며, △공단은 과정운영, 강의참여, 예산부담을 △지역대학은 학생모집, 강의참여, 학점인정을 △전북도는 오픈캠퍼스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 및 정보공유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과정은 1회 4일 30시간 과정으로 2학점이 부여되며, 공단의 특성과 주요업무에 대해 사전학습을 교육하고, 수료 시 인턴 채용 서류전형 가점과 우수학생에 대한 이시장 포장을 실시하는 등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픈캠퍼스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대학의 취업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은 이전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이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로 해결해요"

### 개인·집단·가족상담·생활관리·대안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오는 7월 27일부터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11박 12일 간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 지원과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을 키우기 위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가 중학교 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이상에서 위험

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이 전 학년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미디어와 차단된 환경에서의 합숙형 치유캠프로, 30여명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개인·집단·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생활관리, 대안활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과 대안활동을 통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받게 되

며, 캠프가 종료된 후에도 개인상담, 자조모임, 생활태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치유캠프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은 전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jb1388.kr/>)와 전화(063-274-138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참가비는 식비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무료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점증하는 추세인 만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정에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북선수단 해단식 가져

전북장애인체육회는 5일 '제1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전북선수단을 격려하는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전북장애인체육회 회장)와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운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함께 격려했다.

전북 대표선수단은 총13개 종목에서

174명의 역대 최대규모 선수단을 꾸려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며, 대회 첫날 수영 여자 초등부 조민 선수(전주지곡초등학교)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금16개, 은23개, 동11개로 총60개의 메달을 획득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고장에서 열린 이번 체전이 안전체전, 모범체전으로 마무리 돼 장애인체육 선진지역이라는

명모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꿈나무 육성사업'을 통한 선수 발굴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사업 전개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체육활동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초체력인데 육상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 한 것으로 보아 우리 청소년들은 기초체력이 튼튼한 것 같아 장애인체육 미래도 밝아 보인다"며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매진해주길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귀금속보석 판매업체 수출 지원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귀금속보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관련 지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가 마련됐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주최한 수출 불업(Boom-up) 방방곡곡

지원단 행사가 최근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귀금속보석 판매업체와 수출 초보 업체를 대상으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카데미텔&다빛주얼리, (주)익산체인 등 1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사업

설명(KITA 120% 활용하기), 수출 초보기업 성공사례 특강, 수출 컨설팅 및 무역협회 지원서비스 현장신청(수출보험가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무역기금융자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업체 대표들은 무역전문 컨설턴트와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해외수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성당포구농악, 전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익산지역 고유의 전통 농악인 익산성당포구농악이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산성당포구농악은 조선 효종 9년(1658년) '성당창'이라는 조창이 성당포에 설치됨에 따라 '성당포별신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350년간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번 지정된 성당포구농악은 금강변이라는 지리 환경적 영향을 받아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성을 기본 바탕으로 인근 우도농악과 충남 웃다리농악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마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북도 농악문화 다양성의 전승 보존에 있어 이런 점을 높게 평가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임승용 성당포구보존회장은 "이번 익산성당포구농악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오랫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 온 보존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환경에도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여산호산춘(보유자 이연호)'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올해 익산성당포구농악까지 지정됨으로써 9건의 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2건, 전라북도문화재 7건)와 107건의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익산=장인현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